

ISO/JTC1/SC17 (식별카드)

비즈니스표준과 공업연구원 김상구
02)509-7272 skkim@ats.go.kr

1. 개요

가. 출장 개요

- 출장기간 : 2005년 2월 19일 ~ 2월 26일(5박 8일)
- 출장지 :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
- 출장자 : 비즈니스표준과 김상구 연구관
 승실대학교 전문석 교수
 SHT(주)탁승호 대표, 삼성SDS 이준호
- 참가국 : P-member 14개국(미국, 영국, 독일 등) 15명

나. 목적

- ISO/JTC1 SC17 WG10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
- 현재까지 UN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49, Geneva와 UN Convention on Road Traffic-1968, Vienna 국제협약에 의해 각국에서 발행하여 사용해온 국내면허 및 국제면허에 대한 표준회의를 ISO/IEC JTC1/SC17/WG10에서 작업
- 지난 04. 9월 일본(교토) 및 04. 10월 호주(시드

- 니) SC17 Plenary Meeting에서 한국이 제안한 “ Mutual Authentication of International Driver Licenses ” 는 참가국 전원 찬성으로 채택
- 금번 회의는 제안된 내용을 ISO18013에 확대적용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검토

□ 국제통용운전면허의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한 제안기술에 대한 국제표준(안) 논의

[제안 내용 요약]

- ISO18013 IDL의 발급과 범세계적인 Machine Readable IDL의 호환 연동을 위한 단말기 또는 하드웨어의 암호알고리즘 해결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결정
- ISO18013-Part1의 IDL은 육안식별구간에 사진, 성명 운전면허 번호 등의 정보가 인쇄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ISO18013-Part2의 정보를 단말기로 읽기 위해서는 ISO18013-Part2 와 Part2,3의 암호알고리즘과 키 값을 기록해두어야 하나, 경찰이 사용하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암호가 노출되어 도용되거나 남용될 염려가 있음
- 따라서 한국기술의 우위 확보를 위해“ Mutual Authentication of International Driver Licenses ” 의 제7항에 IDL의 발급절차, 범세계적인 호환,

연동성 등을 보장하고 위조카드의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알고리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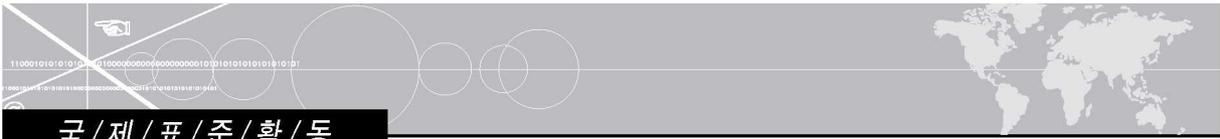
- 국내 Work Item 제안에 대한 editor로서의 역할 수행
-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KEY관리, 보안 및 DB관리에 관한 기술교환
 - 용어정립 및 ICAO기준을 기반으로 한 생체인

식 관련 기준 등

- 운전면허 분야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간 상호 인증을 위한 국제동향 및 기술현황 분석
- 암호유출 방지를 위한 단말기 데이터 보호 방안
 - 암호알고리즘에 대한 국내기술 발표 및 적용
- 차기 WG10회의 개최국 논의

다. 일정별 업무수행내용

월일	회의	주요 업무수행내용
2. 19(토) ~2. 20(일)		○ 인천 출발 ->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 도착
2. 21(월)	ISO/JTC1 SC17 WG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SO/JTC1 SC17 WG10 참가국 대표와 미팅 및 구체적인 회의진행 설명 ○ 운전면허에 탑재 할 사진 얼굴 이미지 픽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CAO기준을 기반으로 한 얼굴 이미지 제안 - 용어정립 ○ 암호유출 방지를 위한 단말기 데이터 보호 방안
2. 22(화)	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SO/JTC1 SC17 WG10 국제회의 참여 및 표준화 작업 참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의 운전면허 표준화 현황에 대하여 발표 - 국제 표준화동향 조사 - 향후 표준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
2. 23(수)	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통용 운전면허와 ICAO규격과의 연계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KEY관리 및 분배 방안 ○ 차기 WG10회의 개최국 논의
2. 25(금) ~2.26(토)	.	○ 남아공화국 케이프타운 출발 -> 인천 도착



2. 2005년도 ISO/JTC1/SC17 WG10 국제회의 참가 결과

□ 접촉인물

- ISO측 : Geoffrey G. Siagle (ISO/JTC1 SC17 WG10convener)
Tshupeng Freddy Mosane(ISO/JTC1 SC17 WG10의 Secretary)
Thabo Aubrey Tsholetsane(ISO/JTC1 SC17 WG10의 Secretary)
Ronald C. Field , Loffie Jordaan, sasaki 등 15명
- 우리측 김상구 연구관, 송실대 전문석 교수, SHT 탁승호 박사, 삼성SDS 이준호 책임

□ 주요 발표내용

1) 미국

- Datacard Dr.Chuck, Intelli-Check, Geoffrey G Slagle (WG10 Convenor) 등 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SC17AWG10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
 - 현재 미국은 50여개 주에서 발행하는 면허를 국제 통용운전면허(IDL)로 통합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
 - 국제통용운전면허를 미국이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자여권과 연계할 계획은 없음
 - IDL을 활용하여 표준규격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크고, 관련기업의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면허관리시스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허정보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실질적인 표준화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표명
- #### 2) 일본
- Sasaki 등 4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특히 일본 경찰청의 면허 전문가를 파견하여 국제 표준화 활

동에 적극 대처

- 특히 일본은 지난 고베 지진사태 이후 비접촉식 전자면허증을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발급할 예정임.
 - 일본 2005년 초에 5-6백만 IC카드 운전면허 발급예정
 - 일본경찰청은 2006년 1월까지 10%의 IDL을 발행할 계획
 - IC카드면허증은 2010년 까지 100%발급하고, 2015년 이후 모든 기존 운전면허증을 IDL로 대체 발급할 예정임
 - 일본의 전자면허증은 전자여권과 연계하여 호환성을 갖도록 비접촉식 IC카드 발급예정
- #### 3) EU(영국, 독일, 이태리, 프랑스)
- EU는 전자주민증" E-ID(전자식별)"사업의 일환으로 전자면허증과 의료증을 통합할 예정임.

4) 남아프리카

- 2명의 대표단이 회의에 참석하여 관심표명

5) 호주

-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국제 통용운전면허 표준화의 작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아직 전반적 인면에서 초기단계 임

3. 회의참가 성과 및 향후 계획

□ 성과

- 한국이 제안하여 Plenary Meeting에서 NWI로 제안하여 Resolution으로 채택된 발급자 카드(MAIC Mother Card) 및 운영자 카드(MAMC:Father Card)기술 표준은 WG10/ISO18013-2,3에 접목시켜 국제표준기구에 FCD로 상정기로 참가국 전원 찬성
 - 05년 3월 11일까지 JTC1의 투표문서로 상정

하여 표준화 작업 추진

- MAIC, MAMC 보안 기술은 IDL에 필수 조항으로서 IDL의 호환 연동을 위한 단말기 또는 하드웨어의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사생활침해문제도 동시 해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음
- 특히 미국은 1996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Plenary 미팅시 발표한 한국의 전자주unker 및 교통카드에 지대한 관심 표명
 - 다만, 중국 및 유럽 국가들은 통합개념의 전자신분증을 한국보다 늦게 시작했으나 현재는 우리보다 먼저 체계화하여 범세계적인 호환 추진 중
 - ※ 우리의 경우 교통카드는 활성화되는 반면 전자주unker는 중단
- 차기 ISO/JTC1 SC17 WG10 Plenary Meeting을 한국에서 개최해줄 것을 요청
 - 2차 회의 : 벨기에 브뤼셀(2005. 6)
 - 3차 회의 : 한국 서울(2005. 9)

□ 향후 대응방안

- SC17/WG10의 활동은 크게 미국과 미국에 대응하는 일본, 중국, 캐나다, 영국, 호주, 프랑스 등 EU 국가들, 그리고 국제적 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로 구분

- 이들 국가들은 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화 작업을 기업의 Business전략과 연계하여 활동
- 미국과 유럽의 경우 대표단들의 구성이 주로 기업체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표단의 중심이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한국의 경우에도 국내 위원회 구성 및 대표단 선정에 있어 경찰청의 전문가를 물론 전문기업의 대거 참여를 유도
- 21세기의 IT 및 컴퓨터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면허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자동차운전관련 도로 안전 및 위/변조 대책 및 교통사고 발생시 의식불명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까지를 총망라하여 논의되고 있어 향후 TC215의 의료카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
- 특히 경찰청 면허과의 관심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전혀 관심이 없고 국제 통용면허의 의미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국제표준의 중요성과 의미를 제고시켜야 할 필요성 대두
 - 경찰청과 합동으로 "국제 운전면허의 국내외 정세와 대책방안"에 대한 회의개최 예정
- 제3차 ISO/JTC1 SC17 WG10 Plenary Meeting의 한국 개최를 위한 준비(2005. 9) **표준**